



윤장현(가운데) 광주시장이 1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국 (주)구룡자동차 어우양광(왼쪽) 부사장, 한국법인(페펄오트그룹) 김태혁 대표와 완성차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중국 구룡車 2500억 투자 광주에서 전기승합차 생산

광주시와 年 10만대 생산 MOU... 내년부터 E6 모델 조립 생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탄력

중국 완성차 업체인 구룡자동차가 이르면 2017년 광주에서 전기승합차를 생산한다. 중국 자동차 기업이 광주는 물론 국내에 투자해 완성차 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2면>

광주시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시장과 어우양광 (주)구룡자동차 부사장과 민취안흥 국제부 사장 겸 총경리, 김태혁 한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해 구룡자동차의 완성차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의 핵심은 구룡자동차가 내년 광주

지역에 생산공장을 짓고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승용차와 캠핑카·밴 등 차량 10만대를 생산하는 것이다.

구룡자동차 측은 올해부터 100~200대의 물량을 주문받는 뒤 2017년 광주에서 자동차를 조립생산, 연간 2000여대를 국내에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업체가 완성차·부품공장을 건설함으로써 6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E6 모델로 10명~18명이 탑승 가능한 전기 승합차다. 지난 2010년 상해엑스포에 VIP차량으로 제공됐으며, 남아공에 1000대 가량 수출됐다. 1회 충전으로 220km를 운행할 수 있다.

시는 구룡자동차가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의 시험평가 통과에 협력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공장 설립절차, 생산차량 판매 홍보, 공동연구소 개설도 뒷받침한다.

구룡자동차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광주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 주력산업이 바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이다. 광주와 구룡자동차가 서로의 강점을 잘 살려서 협력과 협업의 관계를 탄탄히 다져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룡자동차 어우양광 부사장은 “광주 시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부품업체가 많다”며 “협약대로 공장설립과 완성차 제작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룡자동차는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에 소재한 중국 동종 브랜드다. 2007년 회사를 설립해 승합차와 소형버스를 주력 생산 차종으로 하는 완성차 업체로, 디젤·가솔린 차량 외에도 5종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통합·연대 무산...野, 세결집 총력전

더민주, 총선 ‘경제 심판’ 화두로 중도층·수도권 표심 공략

국민의당, 천정배 당무 복귀...정호준 합류로 교섭단체 구성

㉠ ‘선택 4·13’ 총선 D-27

야권 통합 및 연대 논란이 사실상 종료되고 공천 및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야권 분열로 인해 수도권 곳곳에서 박빙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호남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펼친다는 태세다.

<관련기사 3·4·5면>

더민주의 야권 통합 및 연대 가능성을 두고 사실상 마이웨이로 선언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야권 통합에 대해 “국민의당 일부의 반대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힌데 이어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후보자별 연대에 대해서는 “반대

하지 않는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은 어설픈 연대로 비판에 직면하느니, 오히려 차별화 전략으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주도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함에 따라 새누리당과 일대일 구도의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 지도부에서는 이번 주에 공천을 마무리, 당을 선거 체제로 이끄는 한편 이번 총선을 ‘경제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경제 민주화를 화두로 민심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이날 천정배 공동대표의 당무 복귀로 야권연대 논란을 잠재우고 총선을 향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 지도부가 여야 공천 실상을 비판하며 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정호준 의원의 합류에 따른 원내교섭단체 구성, 경기도당 개편대회 등 심기일전의 계기도 마련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지난 11일 이후 닷새 만에 천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의사봉을 잡았다. 천 대표는 “총선이 딱 4주 남았다. 지도부를 포함한 당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당의 승리와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여야의 공천 결과에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오랜만에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국민의당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정호준 의원의 입당을 공식 발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숙원을 해결했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합리적 보수 인사까지 영입, 좌우의 두 날개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당 개편대회가 열리는 등 총선을 앞둔 전열 재정비 작업도 속도를 더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예정된 광주 지역 경선도 당내 갈등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속의배심원제 경선에서 일부 현역 의원이 탈락할 경우, 공천 갈등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컷오프된 원내연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높아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하루 이틀 만에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인·조훈현·이세돌 ‘국수’ 3명 배출 전남에 바둑박물관 건립

이낙연 전남지사 밝혀

이낙연 전남지사는 16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명(김인·조훈현·이세돌)의 국수(國手)를 배출한 전남에 인류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다”며 “국내 최초로 바둑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에 전남의 할 일”이란 주제의 발표문을 내고 “인류 문명사에 획을 그을 세기적 사건인 인간 이세돌과 기계 알파고의 바둑 대국은 인류에게 충격과 공포, 안도와 감동을 한꺼번에 안겨줬다”며 “전남은 바둑의 메카로 더욱 확고하게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한국기원과 함께 전남도가 오는 8월 3회째 주최하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더욱 체계화·활성화하고 이세돌의 고향 신안 비금도에

2008년 세워진 ‘이세돌 바둑기념관’과 순천 주암에 2013년 문을 연 ‘바둑 특성화 고등학교’를 더욱 내실화하겠다”며 “바둑교사 양성 등을 위한 도내 대학의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은 전남 사람은 AI가 조류인플루엔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로부터 전남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광주과학기술과 전남대학교 등 지역 대학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인류에게 예고편으로 제공한 신문명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인문학적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정한 지원을 하도록 협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바둑 ▶3면

국민의당 총선 경선 격전지 ▶5면

파죽 강호사-나주 박덕순씨 ▶18면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을 끝으로 23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하오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곡성출생, 전남대학교 법학과
- 중국어사회학원 장기유학
- 제3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22기)
- 광주지법·장흥지원·광주고법 판사
- 전주지법 청정지원장
- 광주지법 부장판사
- 강진·나주·장성·광주서구·목포 선거관리위원
- 광주지법 목포지원청 팀장

변호사 송희호 올림

▶업무개시: 2016년 3월 1일
▶개업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6-2 2층(광주변법회관 맞은편)
▶대표전화: 062)231-2300 팩스: 228-2500
▶핸드폰: 010-2931-6875
▶개업소연: 2016. 3. 18(금) 17:00~

완도농협 2015년도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농촌형1그룹)

최우수상 수상

조합원과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과 농촌발전에 노력하는 **완도농협**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해풍을 품은 완도쌀**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정 남 선



완도농협협동조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를 장보고대로 188 ☎(061)552-0788

▶조합장: 정남선 ▶상임이사: 김미남 ▶비상임이사: 김동하, 최정욱, 최병정, 최호성, 김재홍, 조종민, 차국래, 박승규, 손종일, 신현모, 김정태, 유석주, 전진오, 정평균, 조영숙, 정 귀순 ▶비상임감사: 문사훈, 황영창

www.wandonh.com